

제 164 호

주의 세례 기념 축일

1976. 1. 11.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칼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김기수 신부

누구든지 자신의 가장 깊은 양심의 번뇌소리를 듣고, 적어도 한번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으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질문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나그네인 인간은 여러가지 생의 사건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나그네인 인간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감탄할 때도 있으며, 남을 만났을 때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또한 나그네인 인간은 세상에서 때때로 어려운 시련과 고초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타인을 만났을 때 그를 멸시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로 나타났을 때, 그를 박멸하려고도 한다.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죽음과 비참이 반드시 따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였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의 쓴맛을 맛보아야 하는가? 왜 세상엔 전쟁과 비참이 있으며 인간은 왜 또 죽어야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토록 중요와 이기심으로 가득차 있는가?

그런데 나는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 또 선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선을 원하지만 또 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 모순 안에 나는 또 실망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악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구원을 부르짖는다. 드디어 누가 나를 죄악과 죽음의 실패에서, 또 눈물의 골짜기에서 구해줄 것인가 하고 하느님의 세계로 눈을 돌려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는 죽고 부활한 예수님의 생애에 자신의 운명을 일치한 신자들이다. 나그네인 인간은 메마른 사막을 걸다가 불타는 목마름 때문에 기진맥진하여 푸른 물을 찾는다. 물을 만난 그는 실컷 목을 추기다 못해 온 몸을 물속에 담그어 버린다. 물은 이렇게 생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물은 또 더러운 나의 몸을 씻어준다. 그래서 물은 정화를 상징한다. 죄악의 더러움에서 인간은 자신을 씻으려 할 때, 모든 종교들은 물을 사용하였다. 이 인간의 정화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다. 죄악이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씻기 위해 회개하며, 하느님의 생명의 기쁨을 맛볼 것을 갈망하였다. 물속에 잠긴 예수는 또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물에 잠긴다는 사실은 무덤에 묻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물은 생명과 정화를 상징하지만 죽음과 죄에서 허덕이는 인류의 운명을 변화시킨 것은 다만 아닌 십자가가장 그리스도의 능방에서 흘러나온 피와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세를 받았기 때문에 실망과 고독의 골짜기에서도 허덕일 수 없으며 비록 어려운 시련일 따위 기쁨을 가지고 골짜기 이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고 부활한 예수님의 구원계획에 자신을 일치시켜야 한다.

<황등 본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 기도서 P 239

(1) 개회식

□입당송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머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성부의 소리가 들려 왔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42 : 1-7 경향잡지 P 86)

보라 내가 좋아하는 종이로다.

□찬송가 300 야훼님이 당신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니라.

하느님의 아들들야 야훼께 바쳐라/주님께 그 이름의 영광 드리며/거룩한 차림하고 주께 조배 드러라. ◎

□제2독서 (사도행전 10 : 34-38 성서 P 290)

하느님이 성신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 : 6-11 성서 P 75)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신자들의 기도

1. 자비하신 주님! 희망과 기대속에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당신의 성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

2. 우리 모든이들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고독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당신을 향하는 항구한 마음을 주소서◎

3. 주님! 당신의 성세 기념일을 맞이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보라 이분이야말로 요한이 예언한 그 분이시니 이 분을 요한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도다

謹 賀 新 年

1976. 元旦

전주교 전주교구 사제양성 후원회

회장	조성호
부회장	강예순, 김병구, 김은홍
	장준수, 조경만 (가나다순)



『교리 교육에 대한 소견』

김 종 길 신부

“교리 교육과 교리교사 양성”

1. “교회는 교육상의 임무를 완성함에 있어 모든 적절한 수단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경주한다. 그 고유한 수단 중 첫째가는 것은 교리 교육이다.” (교육에 관한 선언 4.)

교황 성하께서는 전세계 교리 교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그 예로 지난 성년동안 많은 교리 교사들을 로마 성지 순례에 초청하셨다.

우리 교구에서도 그 대표로 한사람이 로마 성지순례에 다녀왔다. 그런데 우리 교구에는 교리교육을 맡고 있는 전 담교리교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 교구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보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 교구 나름대로 교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교리교수는 교리로 신앙을 밝혀 줌으로써 사람들 ~~을~~에 활기 있고 표현적이며 활동적인 신앙을 길러주는 것이므로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 그리고 어른들에게까지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도록 보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리교사들이 그 직무의 타당한 준비로서 교회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학의 이론과 실천을 습득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또한 어른 예비자들의 교리 교수도 실시하고 보다 적당하게 개선하기로 노력할 것이다”(주교들의 교회 사목적에 관한 교령14)

본당 신부와 수녀들만으로 전 교우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교사, 청소년을 위한 교리교사, 젊은이들을 위한 교리교사, 어른들을 위한 교리교사, 예비자를 위한 교리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교구는 평신도 사도적 활동과 여러 신심단체에서 복음전파에 힘을 모아왔다. 그러나 교리교육과 성서교육이 그들의 열성에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들의 교리지식이나 성서지식은 스스로 맹렬히 반성하지 않고서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것과 교리지식이 없는 복음전파 사업은 자멸을 재촉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하루 빨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어른, 예비자

지도를 위한 지침서와 교리교육의 기본원리, 그 순서, 교과서가 편찬되기를 바라고,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체계가 마련되기 바란다. (주교 교령 44)

2. 사도직을 위한 교육은 아동 교육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사도직으로 인도하며, 사도적 정신에 젖도록 해야한다. (평신도 교령 30)

장래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 어린이들에게도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하느님 나라의 역군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구는 어린이 종교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도 실제로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 그 예로 주일학교 운영을 보자.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 본당은 극히 드물다고 본다. 어린이 미사도 마찬가지이다. 어른들 중심의 미사에 끼어 장난도 못하고 구경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미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교리교사들도 본당신부와 사도회의 무관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교리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보다 효과적인 교리를 가르치도록 “새싹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매달 실비로 제공하고 있다. 그 “새싹”도 이제는 질식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상의 문제점들은 열의있는 분들에게는 마음 아픈 얘기라서 죄송하게 생각된다. 교리 교육과 교리교사 양성에 관한 제반문제는 그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책임이 아니라고 본다.

참사회 평신도 협의회등 거교구적인 운동과 적극적인 추진이 없이는 현재상태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본다. 문답식 교육은 이제 맞지 않다. 그렇다면 더 좋은 교리서와 교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사실 교육은 정지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 답답함을 공감한다면 이 일을 서둘러 손을 써야될 것이다. 그 무엇을 바라고 있는 회장들, 어린이, 젊은이, 청소년, 예비자, 어른들의 소리를 듣고 (양케이트 조사라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교리교육에 대한 계획과 연구와 실천에 힘입합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전주교구 주일학교 지도신부〉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캐리장 옆
 전화 ② 6544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표구제로 각종한지
 실크 솔입벽지 파워텍스
대동지물상사
 페인트 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② 5986
 임 정 원(도민교)

여성 여러분에게 맛을 팝니다
썬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삼성전주센터 앞
 19



새해를 맞으며

김 재 덕 주교

20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에 접어드는 1976년의 새해를 맞는다.

주님의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 새해라 해서 재료를 바가 없겠지만, 역사를 이루는 시간의 흐름에서 볼 때, 1976년은 우리가 처음으로 맞는 새로운 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시간은 새로우나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누군가가 말한대로 1976년의 해도 새로운 해가 아니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되풀이 되는 묵은 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구태의연한 생활을 거듭하면서 묵은 해만을 되풀이 하여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일이다.

금세기의 남은 4반세기를 보다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새해는 보다 획기적인 해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세기를 일컬어 "격동하는 혼란의 시대"라 함은 옳은 말이다. 특히 제2차 대전 후부터의 격변하는 사회상은 과연 게오르규가 말한대로 정치, 경제, 문화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24시를 지나서 25시적인 대 혼란을 야기시키고 말았다. 특히 과학기술의 혁명은 인간의 자연정복의 절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애써 올라간 산 봉우리가 높아져, 현기증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의 바탕을 이루는 휴머니즘,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시대사조는 종든 나쁘든 간에 우리의 교회 사상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서도 초자연의 힘보다는 인간의 힘으로써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써 현대세계 안에 양성한 동화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즉 교회는 현대세계 안에서도 취할 바는, 이를 과감히 받아들여, 그 고유한 사명을 펴나가는 거대한 작업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인 것이다.

이에 남은 4반세기를 공의회의 정신으로 굳게 다져, 보다 나은 다음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새해부터 더욱 바쁘게 서둘러야 하겠다.

60여명 학생들이 교무금

자진 신립에 앞장

197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군산 둔율동 학생회는 지난 1월 4일 임시 총회를 갖고 교회와 학교가 바라는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다짐.

모든 학생이 교무금 자진 신립에 앞장서기로 결의 우선 6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방법은 용돈을 절약하여 매월 200원씩 일년에 2,400원씩이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많은 학생이 참가함으로써 본당의 어린 신자들의 교회 참여에 하나의 경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야고버)

제가 개업하였읍니다

연탄 직매소

이 영 희(다우)

□전동성당 골목 전화 ②8466

배달원을 급히 모집합니다

謹 賀 新 年

❖강가루표 양말 전복 직매점❖

주 주 네 집

□전주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 ⑥6508

종합전지
전주 팔달로 10광주짜행원
김 중 한 | 원선시모 T2-3332

* 타자기 수리 *

전주 뉴 타자 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원장 신 승 무(바오로)

전화 ⑥ 6 6 6 4

타자수리, 취업알선, 수시검정

김 용 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재단사 정병준 (정아우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 은행 앞

전화 ⑤ 3 5 1 9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동

(전화 ⑤ 4577)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7차 전주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 1976년 1월 12일(월)~15(목)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비> 각 분당 발송된 공문 참조 많은 분당 교사 선생님들의 참석 바람.
2. ☆종교 방송 안내☆ 전주 서해방송 종교방송 : 1976년 1월 11일 오전 7시 40분~50분까지. <연사> 전주교구 사목국장 범석규 신부 *남원 K.B.S 종교 방송 : 1976년 1월 11일 오후 4시 20분~30분 <연사> 남원분당 김병열 신부
3. 공소 순회 교육 실시 : 17-18일 (등용리, 한들) 24-25일 (수청리, 석동)
4. J.O.C 선배 투사 모임 : 1976년 1월 15일 오후 7시, 가톨릭센터에서 많은 선배 투사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5. 이삭회 회원 모집 : 젊은이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성경연구와 자유토론, 전전 포크송과 오락을 통한 교양 수련에 참가 하실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중양)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이상웅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2.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3. 판공 성사 안 보신분은 금주 안으로 보시기 바람
4. 미 교무금 신립자는 빠짐없이 신립하여 주시기 바람
5. 주소 변경 신자들은 금주 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특별헌금 6,325원

(노송동)

전화 ⑦0732 주임 신부 고영광
 보좌 신부 한백년
 사도 회장 조해형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 다음주
2. 새 성당 의자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이용호 : 10,000원 김 엘리사벳 : 2000원 박 베로니카 : 만원 주계 22,000원 누계 : 1,281,830
3. 새 성당 전등 회사하신분 감사드립니다. 새 멜라리아 : 2만원 남노행제탑, 송 바울라, 조 수산나 전등 이름없이 김순희 : 각 1만원 김순희 자 : 1만원
4. 성당 전등 3개 뜻있는 교우 신청 바람 ☆ 축결혼 ☆ 1월 14일 오후 7시 신랑 정태진군, 신부 박정숙양 (1월16일 오전19시) 신랑 배정호군, 신부 임복희양 <1월16일 오전19시> □예애 예수 구유 헌금 : 17,020원

(덕진)

전화 ②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1976년은 교우 1인 1건이상 봉사 실천의 해
2. 각 신심단체 정기 회의 안내 매월 1째주 : 사도회 전체 회의 공식 미사후 " 2째주 : 중 고등학생 회의 " " 3째주 : 청년회의 " " 4째주 : 부녀회의 "
3. 35사단 미사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 신용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5. 의료보험 세미나 : 오늘 공식 미사후 <연사 : 조해형 선생님 의료 보험 전문>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중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구정 합동 위령미사 봉헌 : 오전 10시
2. 복자 부녀회 정기총회 : 공식 미사후
3. 복자 성우회 : 공식 미사후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미사후
2. 예비자 영세식 및 유아세례 : 오늘 오후 2시 반드시 대 부모 되실분 같이 나오시기 바람.
3. 병자들을 위한 고해와 봉성체 : 1월12일(월) 오후2시 ☆ 축결혼 ☆ 12일 오전 10시 신랑 김상봉군 신부 이순금 양 신랑 임재필군 신부 김순연 양 (13일 오전 12)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양윤
 사도 회장 양윤모

1. 자모회 : 공식 미사후
2. 성가회 : 월요일 오후 2시
3. 장우회 동 반장회 : 저녁 미사후
4. 학생미사 : 매주일 오전 9시
5. 교리 시간 안내 : <10시 미사후> 50세 이상 여자 30~40세 남자 <저녁 미사후> 50세 이상 남자 30~40세, 여자 수요일저녁 미사후 : 청년 남자 토요일 4시미사후 : 학생중, 고
6. 신용 조합 : 14일 밤 7시 40분 월례회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창제 안류인유 신태정	동계 학생 신앙 강좌	24,40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회	어린이 교리 실시	1,225원
		신자 재 교육 실시 L.M 활동 단원 모집	4,890원			성심회 월례회	547,69원
제 2 지구	대문울동동합	예비자 교리	7,750원	제 4 지구	중노중년자서학동	꾸리아 월례회	58,911원
		학생회 임의 총회	27,475원			성당 전등 뜻있는 교우 신청 바람	27,105원
		꾸리아 회합	14,705원			복자 부녀회 정기 총회	19,340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동계 어린이 특별교리	21,445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사도회 임원회	4,500원
		애령회 가입 희망자 접수 요망	3,810원			학생회 피경 계획	16,055원
		상임 위원회 월례회	13,050원			성서 연구 모임	6,990원
		지방 교리 강습 실시	5,670원				